

# 광주·5개 시군 경제자유구역 지정 힘 모은다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광주권 국제관광도시 지정 협력  
세계수영대회 성공 개최 등  
3대분야 15건 과제 추진 점검

‘광주권 국제관광도시 지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광주시와 인근 5개 시·군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는 23일 ‘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등 인접 5개 시·군의 기관장들은 지난 22일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제6회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추진해온 3대 분야 15건 협력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4건의 신규안건을 상정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행정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의

견을 모았다.  
3대 분야 15건의 협력과제는 남도문화 융성 및 관광자원화 분야에서 ▲다정다감 남도탐방 ▲지역축제 상호 교류협력 ▲명품체험마을 연계협력 관광 활성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협력 등이다.  
인프라 구축 및 경제 활성화 분야는 ▲광주 순환고속도로 건설 ▲광주 하남~장성 삼계 간 광역도로 개설 ▲지방도 825호선 시설개량사업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건설 ▲KTX 장성역 정차 추진 ▲겨울철 재설대책 공동 대응 추진 ▲동북계통 기존 도수관로 철거 등이다.  
또 자연생태공원 및 휴식공간조성 분야는 ▲송촌보 주변 수변테마공원 조성 ▲구너릿재 구간 활용 광역자전거길 구축 ▲황룡강 자전거도로 투어 프로그램 개발 ▲영산강 자전거길 정비 등이다.  
이날 회의에 상정해 집중 논의한 협력방

안 안건은 ▲광주권 국제관광도시 지정을 위한 협력 추진방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광주)석저마을~(담양)개신동마을 도로 확보장 ▲국립삼혈관센터 설립 추진 등 4건이다.  
특히 지난 4월2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광역시 1곳을 글로벌 관광도시로, 기초 지자체 4곳을 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 발표에 맞춰 ‘광주권 국제관광도시 지정’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관광코스 공동개발 및 연계관광의 상생모형을 창출해 남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광주와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을 모두 둘러볼 수 있도록 계획이다.  
또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혁신적 산업 생태계 조성, 기업 투자 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년에 개최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담양 대나무축제, 설립 화순버스투어, 함평 나비 대축제, 장성 황룡강 홍길동 꽃길 축제 등의 성공을 위해 상호 적극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광주시와 인접 시군이 현안에 대해 행정경계를 뛰어넘어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하면 큰 문제 등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며 “지역 현안인 광주권 국제관광도시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당면과제 해결에 힘을 모아가지자”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5년 구성된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는 지역 간 ‘상생’을 위해 현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해 ‘지역행복생활권 운영체제 평가’에서 지난 2015년, 2016년 연속 우수생활권으로 선정됐으며 전국 63개 생활권 중에서 최다인 선도사업 6건이 선정되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 서울시와 도시철도 건설 업무협약 이용섭·박원순 시장, 기술향상·노하우 교환 등 협력키로

이용섭 광주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시장에서 열린 서울 도시철도 50주년 기념행사에서 ‘도시철도 건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철도 건설의 기술향상 및 노하우 교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서울시는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한 기술 및 정보의 제공과 사업 지원사항 등을 상호 협력해 공동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건설 매커니즘 연구에 관한 기술 및 노하우 상호 교환 ▲인적 자원의 교류 및 교육 ▲각 상대방의 도시철도 건설사업 홍보 ▲상대방의 시정현안에 대한 조력 ▲국내외 자료조사 및 공유 ▲시책사업 지원 및 협조 등 상호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한다.  
또 각 상대방은 향후 업무협력을 위해 담당자를 선정해 제휴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의 임

직원을 상담역 또는 자문역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분야의 효율적인 추진과 세부 업무의 상호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와 서울시의 협약 체결로 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철도 역량과 자원을 상호 지원하고 교류할 수 있어 최대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와 서울시가 그동안 축적해온 도시철도 건설 기술 및 노하우를 상호 교환하고 인적 자원의 교류를 통해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성과 편의를 높여나갈 것이다”며 “특히, 서울도시철도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광주의 도시철도 2호선을 안전하고 편리한 명품 도시철도로 건설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북구 ‘광주호 호수생태원’ ‘강소형 잠재 관광지’ 선정

광주시 북구는 “광주호 호수생태원인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가 주관한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라고 23일 밝혔다.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육성사업’은 균형 있는 지역관광 발전을 위해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잠재력이 높은 지자체 단위의 잠재 관광지를 발굴 및 육성하는 사업이다.  
강소형 잠재 관광지로 선정된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무등산과 연계된 수변 생태공원으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광주 시민들의 대표적인 근교 힐링 공간이다.  
광주호 호수생태원 일대는 환벽당, 충효동 왕버들군을 비롯한 취가정, 정려비각 등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정신이 깃든 역사유적도 자리하고 있어 북구가 지역대표 관광지로 육성하는 곳이다.  
북구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최대 2020년까지 ▲강소형 관광지 구축을 위한 컨설팅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지역특화상품 개발 및 운영 ▲팸투어, 관광캠페인, 관광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받아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잠재 관광지 선정은 광주호 호수생태원의 생태자원과 시가문화권 역사자원의 가치를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인지도 확보와 관광객 증대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및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북구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서구 독서동아리 출범...61개 동아리 선정 도서구매·컨설팅·교육 지원



광주시 서구가 지난 22일 ‘2019년 서구 독서동아리 출범식’을 열었다.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고 ‘시대의 변화, 독서의 의미와 가치’를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이 실시됐다.  
이번 출범식에는 독서동아리 대표 및

회원 150여명이 참여했다.  
서구는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61개 독서동아리를 선정했다. 선정된 독서동아리는 도서구매, 찾아가는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활동이 우수한 동아리는

북 콘서트와 문학기행 등 도서관 행사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서구 관계자는 “동아리 활동과 독서 토론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책 읽는 문화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24~26일 DJ센터서 국제뿌리산업 전시회

국내외 145개 기업 참가  
광주 주력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수출 마케팅과 기술정보 교류의 장인 ‘2019 국제뿌리산업전시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국제뿌리산업전시회는 광주광역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OTRA, 광주테크노파크, 전남테크노파크, (사)뿌리산업진흥회가 공동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라남도가 후원한다.  
뿌리산업은 최종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좌우하는 6대(금형, 용접, 소성가공, 주조, 열처리, 표면처리) 핵심 산업이다.  
‘4차산업, 스마트소재·부품 제조혁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145개 뿌리기업이 참가해 302부

스를 운영하며 6대 뿌리기술과 부품, 소재 및 스마트팩토리, 3D프린팅 등을 선보인다.  
광주시와 달빛동맹으로 교류하는 대구광역시에서는 ‘달빛동맹관’을 전시하고, (사)뿌리산업진흥회, (사)한국금형산업진흥회, 전라남도, (사)광주·전남 3D프린팅협회, 광주와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는 공동관을 구성해 첨단 뿌리산업기술과 제조설비를 전시한다.  
광주시는 이번 전시회에 러시아, 미국, 영국, 알제리, 일본, 중국 등 14개국 42명의 해외마이어가 참가하는 만큼 전시장 내에 ‘수출상담회’ 부스를 상시 운영하며 참가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수출, MOU 체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시회 기간에는 기자기자차 광주공장을 방문하는 테크니컬 투어도 함께 진행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앞장...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찾습니다

2000만~8000만원 인증 지원금  
광주시는 광주상공회의소와 함께 2019년도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 가운데 2개 이상의 의제를 실행하면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노력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평가를 거쳐 광주형일자리 선도기

업으로 선정한다.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는 적정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 등이다.  
광주형일자리 선도 기업에는 종업원 수에 따라 2000만원에서 8000만원의 인증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또한, 이와 별도로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각종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사업은 7월 중 사

업계획이 공고되며, 11월 중 인증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매일유업(주) 광주공장, 태제과식품(주) 광주공장 등 2개 사가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광주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062-350-5884)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남구 복지·교통 등 공직자 공공 빅데이터 활용 교육

광주시 남구가 공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주요 부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남구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 빅데이터 분석 활용 전문 위탁 교육은 다음달 3일부터 3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복지과, 교통, 환경분야 담당 공무원 및 전산직 공무원 등 20명 가량이 참석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시대변화에 발맞춰 행정에서도 과학적 정책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탁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

# 회사 사정상 "급매" - 50%가격, 4월 30일까지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구,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전용 약 23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1천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 - 1억 3000만원
- 급매 - 6500만원
- 문의. 010-6834-7400